

「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」 결과

2020. 7.

1 하계휴가 일수 300인 이상 「5일 이상」 58.0%, 300인 미만 「3일」 51.2%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「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하계휴가*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'5일 이상'이라는 응답이 58.0%로 가장 높았고, 300인 미만은 '3일'이라는 응답이 51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* 본 조사에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일정 시기를 지정, 별도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 것임.

- 응답 기업의 91.9%가 '올해 하계휴가 실시'라고 답변(하계휴가 실시기업)
※ 응답 기업의 8.1%는 '별도의 하계휴가 실시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'이라고 답변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'5일 이상'이라는 응답이 58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300인 미만은 '3일'이라는 응답이 51.2%로 가장 높게 조사
-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'3일'이라는 응답이 45.5%, '5일 이상' 31.7%, '4일' 14.0%, '2일 이하' 8.8% 순으로 집계

< 표 1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분포 >

구 분		2일 이하	3일	4일	5일 이상
2019	전체	9.5%	46.7%	15.7%	28.2%
	300인 이상	5.6%	18.3%	23.0%	53.2%
	300인 미만	10.3%	52.7%	14.1%	22.9%
2020	전체	8.8%	45.5%	14.0%	31.7%
	300인 이상	4.8%	18.3%	19.0%	58.0%
	300인 미만	9.6%	51.2%	12.9%	26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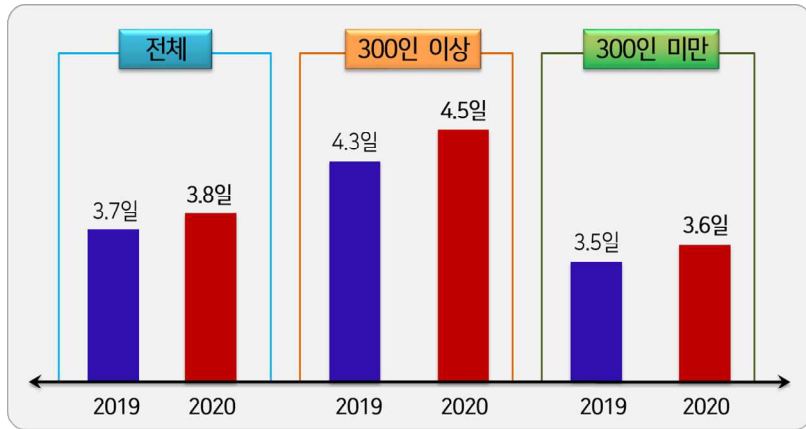
주 : 작년과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휴가 일수 분포

-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.8일로 지난해(3.7일)와 거의 유사한 수준
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대다수는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응답 기업의 6.4%로 집계

-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은 평균 4.5일로 전년(4.3일)보다 0.2일 증가, 300인 미만은 평균 3.6일로 전년(3.5일)보다 0.1일 증가

< 그림 1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>



주 : 2019년 하계휴가 일수는 2020년에 조사한 2019년 실적치

2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8.4%, 올해 하계휴가비 지급. 지급기업 비중 전년대비 6.1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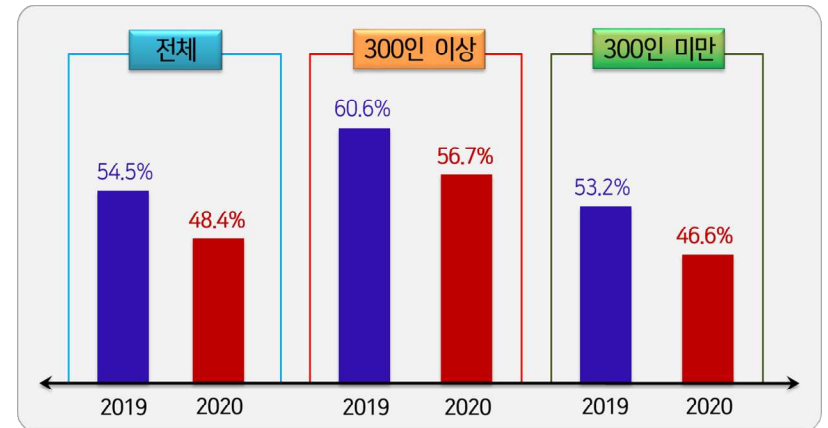
-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48.4%로 지난해(54.5%)에 비해 6.1%p 감소함.

-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, 감소폭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크게 나타남.

- 올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56.7%, 300인 미만 기업이 46.6%로 전년에 비해 각각 3.9%p, 6.6%p 감소함.

※ 기업규모별로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(56.7%)이 300인 미만 기업(46.6%)보다 10.1%p 높게 나타남.

< 그림 2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>



주 : 1.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
2. 2019년 하계휴가비 지급 여부는 2020년에 조사한 2019년 실적치

3 응답 기업의 62.7%,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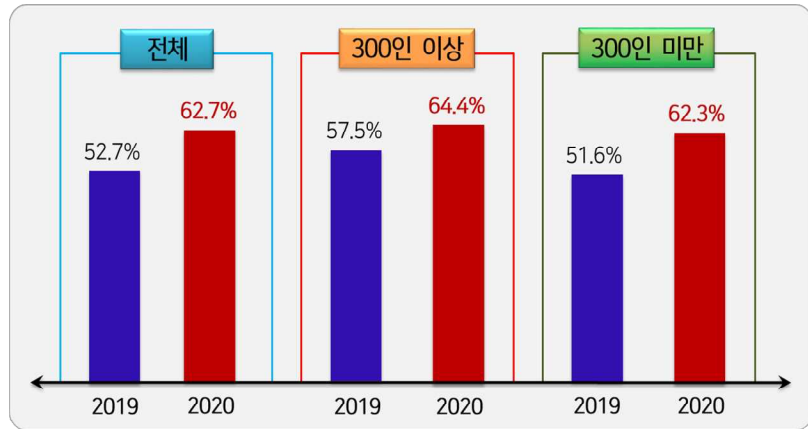
□ 응답 기업의 62.7%가 '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*(근로기준법 제61조)를 시행할 계획'이라고 답했으며, 제도 시행 기업 비중은 전년(52.7%)대비 10.0%p 증가

*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.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,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(고용노동부)

○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'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'이라는 답변이 전년보다 증가

-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대비 6.9%p(57.5%→64.4%), 300인 미만 기업은 전년대비 10.7%p(51.6%→62.3%) 증가

< 그림 3. 기업규모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계획 >



○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된 시행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'이라는 응답이 47.1%로 가장 높게 집계

- 이 외 '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' 39.2%, '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' 13.7%로 조사

< 표 2.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이유 >

구분	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	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	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
응답률	47.1%	39.2%	13.7%

4 하계휴가 실시 기간

4 제조업 72.0%, 「단기간(약 1주일) 집중적 실시」
비제조업 69.3%, 「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실시」
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, 업종별로 제조업은 '단기간(약 1주일)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'라는 응답이 7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비제조업은 '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동안 휴가 실시'라는 응답이 69.3%로 가장 높게 집계
- 제조업은 '단기간(약 1주일)'이라는 응답이 7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장기간(1~2개월)' 20.4%, '2주에 걸쳐 교대' 7.6% 순으로 조사
- 반면, 비제조업은 '장기간(1~2개월)'이라는 응답이 69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단기간(약 1주일)' 18.4%, '2주에 걸쳐 교대' 12.3% 순으로 집계
-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'단기간(약 1주일)'이라는 응답이 58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장기간(1~2개월)'이라는 응답은 32.4%로 조사
 - '단기간(약 1주일)' 혹은 '2주에 걸쳐 교대'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(67.6%)을 대상으로 주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, '7월말~8월초'라는 응답이 83.3%로 집계
 - ※ '8월초' 59.6%, '7월말' 23.7%, '8월중순' 5.7%, '7월중순' 4.9% 등의 순으로 응답

< 표 3. 기업규모별 · 업종별 하계휴가 실시기간 >

구 분	전체	업종별		기업 규모별	
		제조업	비제조업	300인 이상	300인 미만
단기간 (1주)	58.8%	72.0%	18.4%	51.6%	60.4%
2주 교대	8.8%	7.6%	12.3%	6.3%	9.3%
장기간(1~2개월)	32.4%	20.4%	69.3%	42.1%	30.3%

주 :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

5 응답 기업의 76.0%, 최근 경기가 「전년보다 악화」

-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응답 기업의 76.0%가 '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' 답변
 - 최근 경기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'매우 악화되었다'(29.1%), '악화되었다'(46.9%) 등 지난해에 비해 '악화되었다'는 응답이 76.0%로 집계
 - '전년과 비슷하다'는 응답은 21.8%로 나타났으며, '개선되었다'는 응답은 2.1%에 불과
 - 기업규모별로 '전년보다 악화되었다'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(75.5%)보다 300인 이상 기업(78.1%)에서 다소 높게 조사

< 그림 4. 기업규모별 최근 경기(경영환경)에 대한 평가 >



< 표 4. 기업규모별 최근 경기(경영환경)에 대한 평가 >

구 분	매우 악화	악화	전년과 비슷	개선	매우 개선
전 체	29.1%	46.9%	21.8%	2.1%	-
300인 이상	32.2%	45.9%	20.5%	1.4%	-
300인 미만	28.4%	47.1%	22.1%	2.3%	-

6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23.4%, 하계휴가 시 숙박 시설 대여 등 편의 제공

□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23.4%가 휴가 시 숙박 시설 대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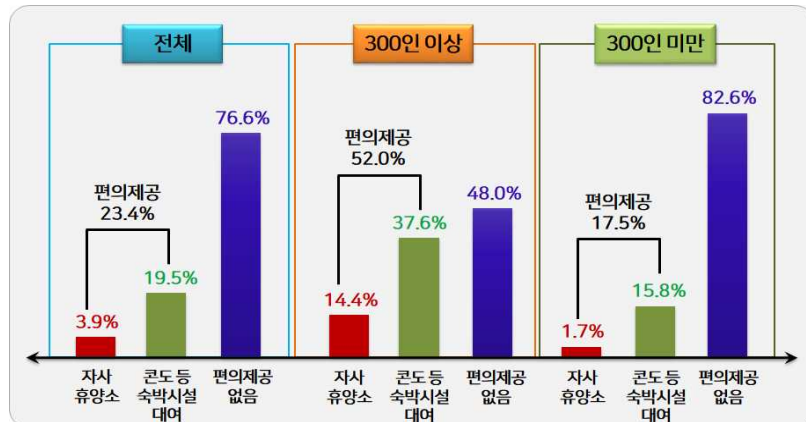
* 콘도 등 숙박 시설 대여 19.5% + 자사휴양소 3.9%

○ 제공하는 편의 종류별로는 '콘도 등 숙박 시설 대여' 19.5%, '자사휴양소' 3.9%로 집계

-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'콘도 등 숙박 시설 대여' 37.6%, '자사휴양소' 14.4%로 나타났으며, 300인 미만은 '콘도 등 숙박 시설 대여' 15.8%, '자사휴양소' 1.7%로 조사

○ 하계휴가비 외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(17.5%)보다 300인 이상(52.0%)에서 높게 집계

< 그림 5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시 편의 제공 유형 >



주 :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「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」는 기업의 하계휴가 실시 여부, 실시 기간 및 편의 제공 유무 등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개별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원사를 포함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중 설문에 응답한 793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기간 : 2020년 6월 22일 ~ 7월 1일 < 10일간 >

4. 조사방법

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.

5. 조사내용

- (1) 하계휴가 일수 및 실시 기간
- (2)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- (3)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
- (4)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
- (5) 하계휴가 시 편의 제공 여부

6. 회수업체 수

구 분	전 체	기업 규모별		업종별	
		300인 이상	300인 미만	제조업	비제조업
회수업체 수	793개사 (100.0%)	146개사 (18.4%)	647개사 (81.6%)	577개사 (72.8%)	216개사 (27.2%)